2019년 12월 농림수산식품 수출 동향 보고서

Ⅰ 총 괄

12월확정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95.4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
- 신선 13.8억불(8.3%↑), 가공 56.5(△0.1%), 수산 25.1(5.8%↑) -

□ '19년 12월(누계)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95.4억불

○ **(신선)** 김치 '12년 이후 1억불 재달, 양파 등 수출 증가에 따른 채소류(324.3백만불, 16.1%↑) 첫 3억불 진입, 인삼(211.1, 12.4↑) 최초 2억불 달성 등으로 신선 13억불 수출 기록

○ **(가공)** 라면은 작년에 이은 4억불 상회 실적 기록에도 불구, 주류(383.7, △5.8), 연초류(929.4, 0.4↑), 음료(422.0, 1.0↑)의 부진으로 소폭 감소

○ **(수산)** 김·굴 등 수출 호조로 인해 12월(누계) 기준 최초 25억불 수출 진입

* 동 기간 국가 전체산업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0.3% 감소한 5,423.3억불

<최근 3개년 연간(누계)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17		2018(A)		2019(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4,466.4	9,153.4	4,815.4	9,300.3	4,740.2	9,538.4	△1.6	2.6
□ 농림축산	3,927.0	6,826.5	4,183.4	6,925.7	4,052.7	7,027.1	△3.1	1.5
○ 신 선	454.0	1,095.3	521.7	1,276.0	640.7	1,382.3	22.8	8.3
○ 가 공	3,473.0	5,731.2	3,661.6	5,649.7	3,411.9	5,644.8	△6.8	△0.1
□ 수 산	539.4	2,326.9	632.0	2,374.6	687.5	2,511.3	8.8	5.8

* 쌀 무상원조 실적 '18년(12.3.천톤, 20.0백만불), '19년(1.0천톤, 2.0백만불) 제외

□ 12월(확정) 기준 일·중·미·아세안 등 주요국 수출 호조, 홍콩·OIC 등 감소

○ (일본) 흡연용 담배 · 식초 · 김 등의 호조로 6년 만에 21억불 재달성

○ (중국) 인삼 · 포도 · 커피조제품 등 큰 폭 증가로 최초 16억불 수출 달성

○ (미국) 음료 · 라면 · 김 · 굴의 증가로 첫 11억불 수출 기록

○ (ASEAN) 인삼 · 딸기 등 호조와 라면의 수출 증가 등 신선 · 가공 고른 증가

○ (홍콩) 궐련, 설탕, 맥주 등 가공 감소로 신선, 수산 증가 불구 전체 감소

○ (OIC) 라면 · 비스킷 등 신선 증가 불구, 궐련 · 음료 · 참치 등 부진으로 감소

<2019년 12월(누계) 주요국 농림수산식품 수출 현황>

(단위 : 천톤, 백만불, %)

국가	일본	중국	홍콩	미국	ASEAN				OIC	EU
						베트남	태국	인니		
'18.12	2084.1	1501.6	424.2	1080.0	1755.8	584.9	409.1	227.2	888.3	585.8
'19.12	2158.5	1629.3	413.3	1171.4	1812.8	672.2	398.6	197.7	754.2	559.7
증가율	3.6	8.5	△2.6	8.5	3.3	14.9	△2.6	△13.0	△15.1	△4.5
비중	22.6	17.1	4.3	12.3	19.0	7.0	4.2	2.1	7.9	5.9

1 12월 국가별 동향

1 일 본

수출실적 (백만불) 및 증감사유	그래프	구분	수출액	증감률
		당월	175.2	17.8%↑
		인삼의 입점 확대 지속과 12월 연말 소비 시즌 맞이한 파프리카의 수출 증가 * 수출실적 : (파프리카) 8.3백만불, 21.6%↑		
		누계	2,158.5	3.6%↑
		다양한 신제품 출시에 따른 인삼 수출 확대와 마시는 식초 유행에 따른 식초 수출호조, 김 증가 등이 수출 상승 견인 * 수출실적 : (식초)28.3, 185.2↑, (김)131.8, 11.8↑		

잔여기간 종합전망

◈ 대외 불확실설(미중 무역분쟁) 우려, 소비세 인상(10월) 등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우려

◈ 다만, 도쿄 올림픽 개최로 인해 전체적인 소비붐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건강관련 상품(인삼류 및 식초 등) 및 음료, 주류, 매운맛 상품(떡볶이, 라면) 등 한국 식품의 수출이 금년 수준 이상 수출할 가능성이 있음

□ 품목별 증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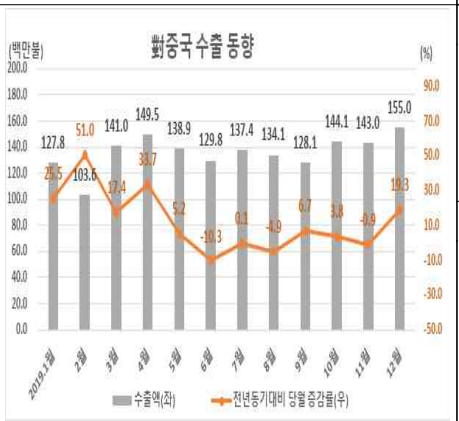
	품목	증감사유
증가	인삼류	◈ **(누계) 34.5백만불(5.0%↑)** * (당월) 4.5백만불(34.1%↑) - 홍삼조제품(스틱형태 젤리, 타블렛 등)의 유통매장(C사 등 대형매장, 드럭스토어 등) 진입 확대, 국내수출업체 마케팅 강화 등으로 수출 증가 - 반면, 저가격(차, 음료) 위주로 물량증가율 대비 금액증가율은 다소 저조 * 수출 물량(누계) : 0.7천톤 → 0.8(12.3↑)
	토마토	◈ **(누계) 14.3백만불(6.8%↑)** * (당월) 1.3백만불 (△10.2%) - 기존의 업무용(레스토랑 등)에 국한된 한국산 토마토의 소비시장이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되어 對일본 최고 수출 실적 기록
	식초	◈ **(누계) 28.3백만불 (185.2%↑)** * (당월) 1.7백만불(109.8%↑) - 마시는 식초 유행으로 대형유통업체와 드럭스토어로 입점 증가 - 수입사 마케팅 활동 강화 등에 따른 매출 증가로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최고 수출 실적 기록
	라면	◈ **(누계) 33.7백만불 (6.5%↑)** * (당월) 2.9백만불 (8.4%↑) - 일본 내에서 매운 라면, 국물 없는 라면, 라볶이 면 등의 인기 지속 및 편의점을 겨냥한 신제품 출시로 전년 대비 확대 - 당월은 겨울철 나베 요리용으로 한국산 사리면 제품 수요 확대

	김	◈ **(누계) 131.8백만불 (11.8%↑)** * (당월) 8.1백만불(57.8%↑) - 상반기에는 TRQ물량 배정이 지연되어 감소세였으나, 금년 일본의 해수온 상승에 따른 김 흉작 지속으로 한국산 김 수요가 확대되어 1억불 상회하는 수출 실적 지속 - 특히, 고명용 부스러기 조미 김 등 다양한 신제품(명란김, 들깨기름김 등) 출시로 김 수출 증가세 지속 - 한편, 당월은 한국 내 김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수출 증가 둔화
	굴	◈ **(누계) 31.6백만불 (10.6%↑)** * (당월) 0.8백만불(133.0%↑) - `18년 서일본 태풍피해로 일본 굴 주산지(히로시마)의 출하량이 감소하여 한국산 냉동 굴 수입 증가 - 당월은 한국 굴 생산량 증가 및 일본 내 소비 시즌 도래에 따른 굴 소비 확대로 수출 증가
감소	파프리카	◈ **(누계) 91.2백만불(△0.6%)** * (당월) 8.3백만불 (21.6%↑) - 국내 작황 호조 및 일본 내 수요 꾸준으로 수출 물량 증가세 유지 - 반면, 일본산 파프리카 출하가 확대되고, 판매기간이 짧은 조생종의 재배가 증가함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수출금액은 5월 이후 하락세 * 수출물량(누계) : (`18.12) 31.8천톤 → (`19.12) 35.3천톤 (10.9%↑) * 수출단가(누계) : (`18.12) 2,889.7원/kg → (`19.12) 2,588.5 (△10.4%)
	김치	◈ **(누계) 55.2백만불(△1.6%)** * (당월) 4.2백만불(4.3%↑) - 태풍에 따른 배추 유실 등으로 배추 가격이 상승하여, 저렴한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 감소 * 10~12월 배추 평균 도매가격 : (`18)3726.9원/kg → (`19)4988.5(33.9%↑)

2 중 국

수출실적 (백만불) 및 증감사유

그래프



구분	수출액	증감률
당월	155.0	19.3%↑
라면·음료·김 등 광군제 이후 발주 증가로 당월 수출 큰 폭 증가		
누계	1,629.3	8.5%↑
한국식품 소비심리 회복으로 라면·인삼·음료·김 등 주요 품목의 현지 판매 호조로 수출 실적 최고치 달성		

잔여기간 종합전망

◈ 최혜국 세율 인하 및 반한 감정 약화로 수출여건 개선되었으나 TRQ 수입배정 지연 · 중간재 수요 감소 등으로 일부품목(당류, 임산물) 수출 부진 전망

* 최혜국(MFN) 세율 : 중국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 세율 인하로 우리 농식품 151개 품목 대중 수출 평균 수입관세율이 기존 20.1%에서 6.4%로 하락

◈ 맥주 · 당류 · 임산물 외 기타 주요 품목과 샤인머스켓 포도의 고른 증가세가 기대됨

□ 품목별 증감 현황

	품목	증감사유
증가	라면	◈ **(누계) 124.4백만불(33.4%↑)** * (당월) 10.9백만불(187.2%↑) - 매운 맛 라면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여 입점 매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면서 對중국 최초 12억불 수출 실적 달성
	인삼류	◈ **(누계) 70.1백만불(37.0%↑)** * (당월) 8.3백만불(80.4%↑) - 건강 중시 소비 트렌드로 기존에 보건식품 인증을 획득한 한국산 인삼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최초 7천만불 수출 달성
	포도	◈ **(누계) 5.6백만불(234.6%↑)** * (당월) 2.5백만불(272.7%↑) - 샤인머스캣의 프리미엄 전략으로 중국산 저가 샤인머스캣 판매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인기 꾸준 - 또한, 온라인 몰, 대형유통매장, 도매시장(상하이 후이잔, 베이징 신파디 등)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판매 호조로 세 자릿수 증가율 보임
	음료	◈ **(누계) 57.7백만불(24.1%↑)** * (당월) 4.4백만불(115.2%↑) - `18년 최혜국 수입 관세율 조정에 따른 한국산 음료 수입관세의 대폭 하락(35% → 5%)으로 바이어 수입이 증가하여 최초 5천만불 수출 달성 - 특히, 지난달 11월 중국 광군절 프로모션 기간 중 한국 음료 유통 확대 되면서 당월 수출액이 큰 폭 증가
	김	◈ **(누계) 112.3백만불(33.6%↑)** * (당월) 6.8백만불(△1.5%) - 탄수화물과 지방 함유량이 낮은 건강한 간식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간편하고 건강한 간식을 찾는 현지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여 1억불을 상회하는 수출 실적을 달성
감소	맥주	◈ **(누계) 82.8백만불 (△1.6%)** * (당월) 5.4백만불(17.6%) - 한국 맥주 중 對중국 수출을 견인하던 ODM 맥주 중국 사업권이 3분기 이후 기존 중국에서 홍콩으로 매각되면서 생산 · 발주 하락
	조제분유	◈ **(누계) 73.8백만불(△6.6%)** * (당월) 6.4백만불(△25.9%) - 유럽산 조제분유와의 경쟁에 따른 실적 감소로 10월이후 감소세 - 한편, 중국 당국이 `18.1.1부터 중국에 유통되는 조제분유에 대한 배합비 등록제도 시행으로 한국산 조제분유는 절반이상이 등록되어 수출 진행 * 수출실적(누계) : (10월)61.1(0.9%↑) → (11월)61.1(△0.3) → (12월)73.8(△6.6)
	설탕	◈ **(누계) 69.7백만불(△13.6%)** * (당월) 8.3백만불(2.3%↑) - 중국 상무부 식용설탕 수입쿼터(TRQ) 물량배정이 작년 대비 3개월가량 늦어지면서 수출가능기간이 줄어들어(5~12월 → 8~12월), 수출실적 감소

3 미 국

수출실적 (백만불) 및 증감사유	그래프	구분	수출액	증감률
		당월	109.3	7.5%↑
		김치, 김 등은 증가세 지속, 반면 인삼류는 11월 발주 증가 이후 12월 감소세로 전환 * 수출실적 : (11월) 115.6백만불, 13.8%↑		
		누계	1,171.4	8.5%↑
		교민 시장과 현지 주류 시장으로의 판매 확대 노력으로 김치·음료·라면·김·굴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김·라면은 최고 수출액 달성		

잔여기간 종합전망

◈ 미국 내에 한국산 식품 인지도 상승에 따라 꾸준히 증가세 유지 전망

◈ 미국이 식품 공급 안전에 대한 사전예방을 중시하면서 식품 수출업체들의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숙지 및 알맞은 대응이 요구됨

□ 품목별 증감 현황

	품목	증감사유
증가	김치	**(누계) 14.8백만불(65.0%↑)** * (당월) 1.4백만불(70.9%↑) - 건강 중심적 소비 트렌드에 따라 발효음식·유산균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형유통매장 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 - 또한, 젓갈을 넣지 않은 김치 등 현지 소비자를 고려한 신제품 개발 등 품목 다양화 등이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쳐 최초로 천만불 상회하는 수출 실적 기록
	라면	**(누계) 53.5백만불(6.3%↑)** * (당월) 4.8백만불(△0.4%) - 매운맛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누렸던 지난해에 비교하여 수출 증가율은 줄어들었으나, 미국 시장에 쫄면·건면·미역국면 등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고, 다양한 인종(히스패닉 등)으로 소비가 확대되며 對미국 최고 수출액 달성 - 반면, 당월은 11월 재고 보유분으로 감소
	음료	**(누계) 74.6백만불 (5.0%↑)** * (당월) 5.1백만불(10.4%↑) - 한국산 RTD차 제품의 신제품 출시 및 소비자 층이 히스패닉 시장을 넘어 백인시장까지 확대되며 음료 시장 확대 중 - 여름철 음료 소비 시즌에 미리 확보한 재고 보유로 당월 수출은 감소
	소주	**(누계) 14.7백만불(15.4%↑)** * (당월) 1.7백만불(34.1%↑) - 과일 소주가 중국계 소비자, 히스패닉, 백인 소비자들까지 높은 인기를 누리며 현지 시장에 맞는 대용량 제품 출시 등으로 최고 수출 증가세
	김	**(누계) 113.2백만불(18.9%↑)** * (당월) 11.0백만불(72.2%↑) - 건강스낵으로 입지를 다진 김스낵 인기로 대형유통업체, 유기농 전문마켓(Whole food 마켓, Sprouts 등)으로 입점이 확대됨에 따라 최초 천만불 수출실적 달성

	굴	**(누계) 20.9백만불(16.7%↑)** * (당월) 1.1백만불 (0.1%↑) - 냉동굴 등이 미국 시장 수요 증가에 따른 대형 유통매장(Whole Food 등) 입점 강화 등으로 對미국 최초 2천만불 달성 - 12월 당월은 재고물량 보유로 감소 전환
감소	인삼	**(누계) 20.9백만불(△11.7%)** * (당월) 1.9백만불(101.2%↑) - 입점 매장 증가 및 제품의 다양화로 수출물량 증가 - 반면, 교포·화교시장으로 한정된 수요와 미국 현지 유통매장(Costco 등)내 고가 제품(인삼엑기스 등) 판매 저조에 따라 금액 감소
	배	**(누계) 34.2백만불(△3.9%)** * (당월) 4.2백만불(△15.4%) - 18년 말부터 미국 현지 통관시 추가 검역에 따른 검역비·보관비 추가 지출로 수출이 주춤하였으나, 11월부터 검역본부 협상에 의해 추가검역 없이 통관중이며 이에 따라 수출 감소폭 둔화
	팽이버섯	**(누계) 9.2백만불(△0.3%)** * (당월) 1.2백만불(21.9%↑) - 아시안 소비자층과 히스패닉 소비자들이 핫팟, 샤브샤브 요리 시 한국산 팽이버섯을 구매하여 수출 물량이 증가한 반면,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으로 수출 금액은 소폭 감소

4 아 세 안

수출실적 (백만불) 및 증감사유

그래프

구분	수출액	증감률
당월	174.7	21.8%
- **(베트남, 68.9백만불, 17.4%↑)** : 딸기 출하시기에 따른 수요 증가 및 건강 음료의 판매 증가, 프리미엄 조제분유 수요 꾸준 - **(태국, 38.0, 39.3↑) :** 라면의 공격적인 마케팅 및 딸기 등 과채류 수출 증가로 증가세 전환 - **(인니, 16.5, 7.3↑) :** 재고보유에 따른 라면 감소 및 음료의 감소 지속		
누계	1,812.8	3.3%↑
- **(베트남 672.2백만불, 14.9%↑) :** 국민 소득 증가 및 K-POP 인기 지속으로 한국산 농식품 수요 꾸준, 건강 관심 증대로 인한 인삼류 등 수요 확대로 6억불 수출 진입 - **(태국, 398.6, △2.6) :** 현지 내수 부진 등으로 김 등 B2B 원재료성 품목 수출 감소 및 경쟁력 약화로 음료 수출 감소 - **(인니, 197.7, △13.0)** : ODM생산 제품 커피음료의 현지 생산 대체로 인한 음료 큰 폭 감소로 전체 감소세		

잔여기간 종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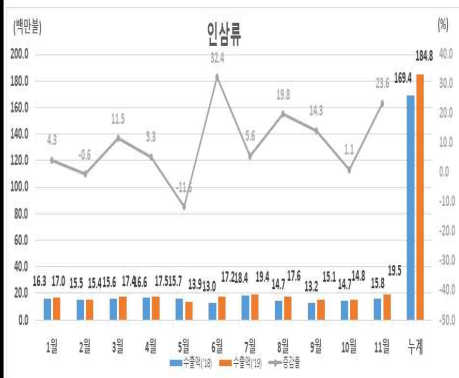
◈ (베트남) 베트남 내 고품질 한국산 농식품 이미지 확대, 현지 가계소득 증가, 건강 관심 증대 VKFTA 타결로 인한 수출 간소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내년에도 수출 증가세 유지될 전망
◈ (인니) 커피조제품, 음료 등 주요 품목의 감소 지속 가능성 반면, 인삼류 등 유망품목은 증가 전망
◈ (태국)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및 바트화 강세가 지속되며 태국 경제 2~3% 저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한국 농식품에 대한 수요 꾸준으로 2019년 수준의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 품목별 증감 현황

	품목	증감사유
증가	인삼류	**(누계) 28.0백만불(36.1%↑)** * (당월) 4.8백만불(80.2%↑) - (베트남) 건강 관심증대에 따른 홍삼조제품 수요 확대 및 중국산 등 타국가산 대비 한국산의 인지도 우위로 對베트남 최초 2천만불 달성 * 수출실적(누계) : (베트남) 21.4백만불, 39.8%↑ * 수출실적(당월) : (베트남) 3.4백만불, 74.8%↑
	딸기	**(누계) 33.5백만불(26.5%↑)** * (당월) 6.7백만불(28.0%↑) - (태국) 맛과 향이 우수한 한국산 딸기 선호 추세와 관세 인하(40%→5) 효과 및 수출 품종의 다양화(죽향, 킹스베리 등)로 연중 고른 증가세를 보이며 對태국 6백만불 최초 달성 - (베트남) 베트남 내 외국산 고품질 수입과일 인기가 상승중인 가운데, 현지산 대비 당도가 높고, 포장이 깨끗한 한국산 딸기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18년 대비 큰 폭 증가 * 수출실적(누계) : (태국) 6.7백만불, 15.6%↑,(베트남) 6.9, 90.0%↑ * 수출실적(당월) : (태국) 1.5백만불, 48.5%↑,(베트남) 1.9, 48.7%↑
	닭고기	**(누계) 47.5백만불(67.5%↑)** * (당월) 4.5백만불(51.6%) - (베트남)베트남 내 아프리카열병 발병에 따라 돼지고기 대체수요 지속으로 수출 증가 및 급식업체.재래시장 등으로 유통 증가 * 수출실적(누계) : (베트남) 46.1백만불, 70.1%↑ * 수출실적(당월) : (베트남) 4.3백만불, 50.5%↑
	라면	**(누계) 104.6백만불(6.0%↑)** * (당월) 7.0백만불(22.3%↑) - (인니) 라면 제품 다양화로 연중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임 - (베트남) 신제품(소고기 라면, 건라면)런칭 및 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유통망 확보, 마케팅 강화 등으로 실적 최고치 달성 - (태국) 11월까지 감소세였으나, 수입업체의 공격적 연말 프로모션 등 판촉 및 신제품(건면) 출시 등 마케팅 활동으로 작년 수준 유지 * 수출실적(누계) : (인니) 21.9백만불, 20.6%↑, (태국) 19.0, △1.3, (베트남)19.2, 28.8↑ * 수출실적(당월) : (인니) 0.0백만불, △96.7%, (태국)1.3, 38.6↑, (베트남)1.6, 41.6↑
	조제분유	**(누계) 16.9백만불(14.3%↑)** * (당월) 1.7백만불(△14.9%↑) - (베트남) 유아 식품 안전성 인식이 높아지며 프리미엄 분유 수요 증가 및 `18 한-베트남 FTA체결에 따른 무관세화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들의 유통채널 확보 노력이 꾸준하며, 최대수출업체의 수출용 신제품 출시 등으로 `15년 이후 1천만불 재달성 및 역대 최고 수출 실적 기록 * 수출실적(누계) : (베트남) 14.2백만불, 65.6%↑ * 수출실적(당월) : (베트남) 1.5백만불, 58.9%↑
감소	음료	**(누계) 144.6백만불(△0.7%)** * (당월) 13.0백만불(25.5%↑) - (태국) 상반기는 미네랄워터 수출로 상승세 였던 반면, 로컬 생산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약화, 알로에 음료 등 일부 제품으로 한정된 품목군으로 인해 8월 이후 감소세 - (베트남) 곡물음료, 건강음료, 차류 등의 인기 지속 및 한-아세안 FTA에 따른 음료 무관세 적용으로 對베트남 최초 3천만불 진입 - (인니) 한국에서 ODM으로 생산하여 수출하던 인기 커피브랜드가 현지 생산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수출 감소 * 수출실적(누계) : (태국) 4.4백만불, △35.0%, (베트남) 34.4, 16.6↑ * 수출실적(당월) : (태국) 0.2, △69.2, (베트남) 3.2, 48.7↑
	김	**(누계) 88.0백만불(△18.6%)** * (당월) 10.9백만불(197.6%) - (베트남) 조미김의 제품 다양화(만전김, 동원양반김, 청정원 조미김 등)로 對베트남 수출 1천만불 달성 - (태국) 한국산 김스낵의 중국 유사품 공장이 증가로 3월 이후 수출 감소세 * 수출실적(누계) : (베트남) 10.7백만불, 21.0%, (태국) 62.3, △24.0↑ * 수출실적(당월) : (베트남) 1.0백만불, △0.1%, (태국)9.0, 580.6 ↑

2 12월 품목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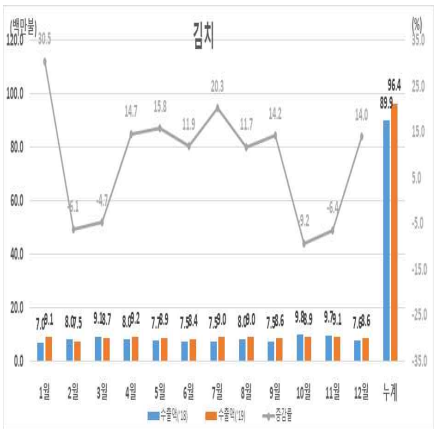
신선 인삼류

수출실적 (백만불) 및 증감사유	그래프	구분	수출액	증감률
		당월	26.8	45.1%↑
		정관장 해외 법인의 현지 적극적인 마케팅과 현지 유통채널 확대 등으로 당월 수출 증가		
		누계	211.1	12.4%↑
		`건강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對중국 홍삼(제품류 포함) 수출과 對베트남 홍삼제품류 수출 큰 폭 증가 등으로 역대 최초 2억불 달성 * 수출실적 : (중국) 70.1백만불, 37.0 (베트남) 21.4, 39.8 (일본) 34.5, 5.0		

잔여기간 종합전망

◈ 일본·미국 시장에서 단가가 높은 수출 품목 부진에 따른 수출 증가율 둔화 우려
◈ 반면,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한국산 인삼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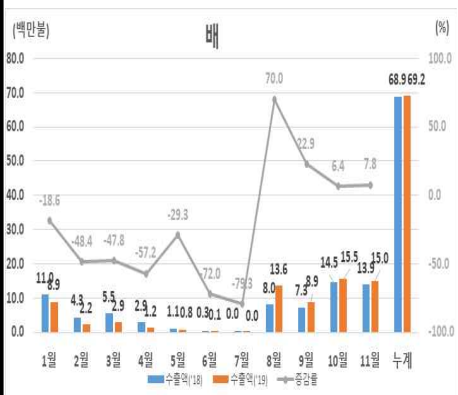
신선 김치

수출실적 (백만불) 및 증감사유	그래프	구분	수출액	증감률
		당월	8.6	14.0%↑
		풀무원, 대상, CJ 등의 미국 대형유통업체 입점 확대, 일본 11~12월 김치 판촉에 따른 증가세 전환 * 수출 실적 : (미국) 1.4백만불, 70.9%, (일본) 4.2, 4.3↑		
		누계	105.0	7.7%↑
		對일본 수출 감소 불구, 미국 유통매장 입점 확대 지속, 홍콩 내 소비 확대에 따라 2012년 이후 1억불 재달성 * 수출 실적 : (일본) 55.2백만불, △1.6%, (미국) 14.8, 65.0↑, (홍콩) 5.0, 10.3↑		

잔여기간 종합전망

◈ 한국 배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 값 상승으로 對일본 수출 감소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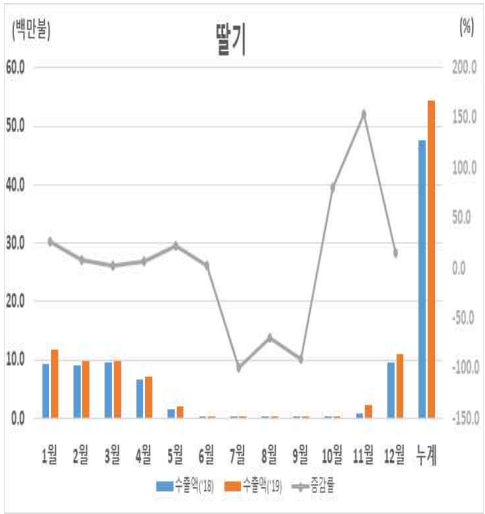
신 선 배

수출실적 (백만불) 및 증감사유	그래프	구분	수출액	증감률
		당월	14.1	26.6%↑
		對대만 수입쿼터를 채우기 위한 바이어 노력으로 당월 수출 증가 * 수출실적 : (대만)5.9백만불, 75.1↑		
		누계	83.3	4.0%↑
		상반기에는 수출가능 저장물량 부족으로 감소세 반면, 8월 이후 `19년도 물량 확보와 對대만 수출 증가로 11월(누계)이후 상승세 전환 및 최초 천 만불 수출 달성 * 수출실적 : (대만) 26.6백만불, 25.0↑		

잔여기간 종합전망

◈ 수요가 급증하는 구정(1월)에 앞서 바이어 선 주문 등으로 수출 회복세 지속 전망

신 선 딸 기

수출실적 (백만불) 및 증감사유	그래프	구분	수출액	증감률
		당월	11.0	14.7%↑
		對싱가포르 딸기 당월 수출 증가 및 딸기 출하시기에 따라 對베트남 딸기 수출 증가, 對태국 12월 킹스베리 초도 물량 현지 고급 마켓 입점으로 당월 증가 * 수출실적 : (싱가포르)2.4백만불, 8.7%↑, (베트남)1.9, 48.7% (태국)1.5, 48.5		
		누계	54.5	14.7%↑
		베트남·태국에서의 한국산 딸기의 높은 선호로 최초 5천만불 수출 달성 * 수출실적 : (베트남)6.9백만불, 90.0%, (태국)6.7,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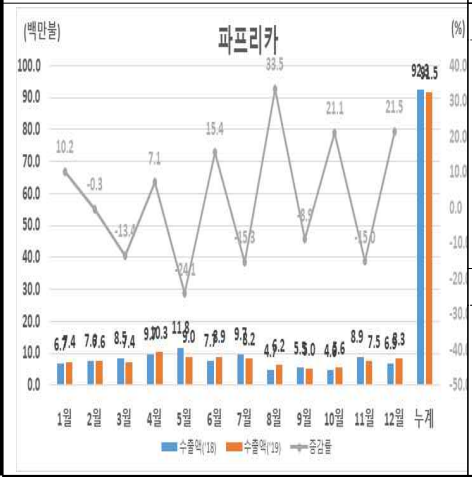
잔여기간 종합전망

◈ 현 베트남 시장 내 일본, 한국, 미국 등 해외의 고품질 수입 과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류인 딸기가 예전부터 현지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수출 증가세 지속 전망

신 선 파프리카

수출실적 (백만불) 및 증감사유

그래프



구분	수출액	증감률
당월	8.3	21.5% ↑

12월 연말 주요 소비시즌을 맞이했으며, 겨울산지에서 출하 및 수출이 이루어져 작년보다 수출물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수출물량 및 금액이 크게 상승

누계	91.5	△0.8%

국내 생산 증가로 수출물량 증가 반면, 일본산 파프리카 출하 확대 등에 따라 연초부터 낮은 수출단가 형성되어 수출액 감소

* 일본 수출 단가 : ('18) 2,889.7$/kg → ('19)2,588.5 (△10.4%)

잔여기간 종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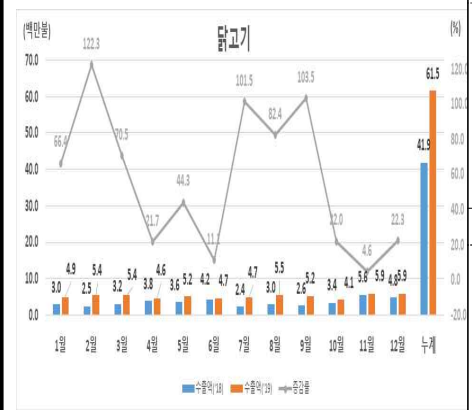
◈ 추석 이후 국내 파프리카 시세가 안정을 되찾고, 10월까지 하기작 물량이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있어 향후 수출은 증가세 전환 전망

* 파프리카 국내 도매단가 : ('18.12월)19,000/5kg → ('19.12)20,350원 (7.1%)

신 선 닭고기

수출실적 (백만불) 및 증감사유

그래프



구분	수출액	증감률
당월	5.9	22.3% ↑

베트남 내 건기(9·10~2·3월)에 따른 국물요리의 식재료로 냉동 닭고기 수요 증가

누계	61.5	46.9% ↑

베트남 내 한국산 냉동 닭고기의 유통매장 입점확대와 홍콩 내 간편식 시장 성장에 따른 닭가슴살 등 수요 증가로 최초 6천만불 달성

잔여기간 종합전망

◈ 베트남, 홍콩 성계 수출 확대가 지속이나, 미국 일본 내 삼계탕 수요가 한인 시장으로 한정되어 삼계탕 수출 실적 감소 우려

가 공 라 면

수출실적 (백만불) 및 증감사유	그래프	구분	수출액	증감률
		당월	39.0	40.0%↑
		중국 최대수출업체의 바이어 변경에 따른 물량 안정적인 수출로 당월 증가 * 수출실적 : (중국) 10.9백만불, 187.2%↑		
		누계	467.1	13.1%↑
		중국 내 유통채널 확대 및 미국 내 인기 지속에 따른 신제품 출시, 인니의 할랄 인증 취득 등으로 작년에 이어 4억불 상회 수출실적 달성 * 수출실적 : (중국) 124.4백만불, 33.4%↑		

잔여기간 종합전망

◈ 건면 등 신제품의 출시와, 주요 수출 시장 내 유통망 확대, 할랄 인증 획득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적 수출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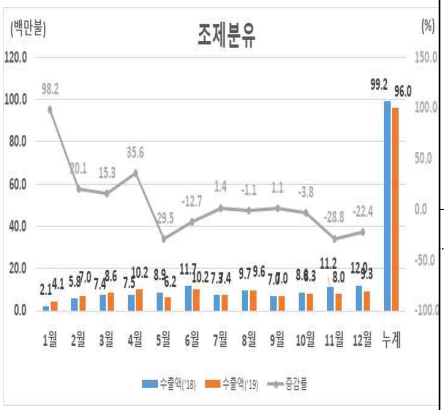
가 공 설 탕

수출실적 (백만불) 및 증감사유	그래프	구분	수출액	증감률
		당월	11.7	△0.5%
		중국 수입쿼터 할당 물량의 수출이 하반기부터 진행되면서 당월 증가세 * 수출 실적(당월) : (중국) 8.3백만불, 2.3%		
		누계	119.8	△14.5%
		중국 수입 쿼터 배정 기간이 전년 대비 3개월 가량(5~12월 → 8~12월) 줄어들면서 누계 감소세 지속 * 수출 실적(당월) : (중국) 69.7백만불, △13.6%		

잔여기간 종합전망

전년 대비 늦은 TRQ 물량 배정에 따라 전체적인 對중국 설탕 수출이 늦어지면서 연간 수출 실적 감소하였는데, 내년도 쿼터 배정도 불확실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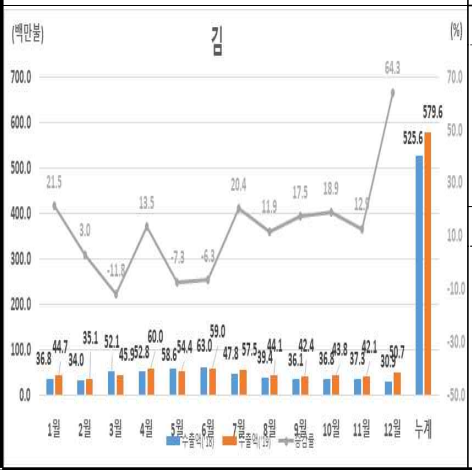
가 공 조제분유

수출실적 (백만불) 및 증감사유	그래프	구분	수출액	증감률
		당월	9.3	△22.4%
		중국시장의 유럽산 선호 확산에 따른 한국산 판매 부진으로 인해 재고가 발생함에 따라 당월 발주 감소 * 수출실적 : (중국) 6.4백만불, △25.9%, (베트남) 1.5, 58.9↑		
		누계	96.0	△3.3%
		수출 비중이 큰 중국내 유럽산과의 경쟁에 따른 실적 감소로 10월부터 감소세 - 반면, 베트남 내에서 프리미엄 분유 수요에 따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최고 수출 기록 * 수출실적 : (중국)73.8백만불, △6.6%, (베트남)14.2, 65.6↑		

잔여기간 종합전망

◈ 현재 한국산 조제분유의 가장 큰 경쟁제품은 중국 대형 유제품 기업의 조제분유 제품으로, 최근 중국 당국의 자국산 조제분유 경쟁력 강화 방침 이후 중국산 조제분유의 현지 판매가 증가하면서 신흥 성장 도시(2,3선 도시)에서 한국산 조제분유의 시장점유율을 위협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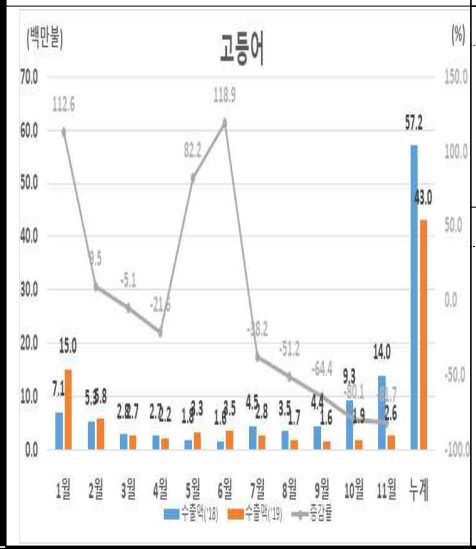
수 산 김

수출실적 (백만불) 및 증감사유	그래프	구분	수출액	증감률
		당월	50.7	64.3%↑
		미국·태국 등 주요 조미김 시장의 연말 수출 증가 * 수출실적 : (미국) 11.0백만불, 72.2%↑, (태국) 9.0, 580.6↑		
		누계	579.6	10.3%↑
		일본 내 김 흉작에 따른 한국산 수요 증가, 중국 내 김스낵이 건강 간식으로 인지, 미국 내 입점 확대에 따라 수출 증가 * 수출실적 : (일본)131.8백만불, 11.8%↑, (중국)112.3, 33.6↑ (미국) 113.2, 18.9%↑		

잔여기간 종합전망

◈ 20년산 김 생산량 감소에 따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산 김과의 경쟁에서 다소 어려움이 전망됨

수 산 굴

<table>
<tr><th rowspan="5">수출실적
(백만불)
및
증감사유</th><th>그래프</th><th>구분</th><th>수출액</th><th>증감률</th></tr>
<tr><td rowspan="4"> 
</td><td>당월</td><td>3.8</td><td>48.0%↑</td></tr>
<tr><td colspan="3">對일본 신선 굴 수출 증가가 당월 증가 견인
* 수출실적 : (일본)0.8백만불, 133.0%↑</td></tr>
<tr><td>누계</td><td>76.7</td><td>11.5%↑</td></tr>
<tr><td colspan="3">국내 굴 생산증가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 및 일본 출하량 감소에 따른 수요 꾸준·미국 내 냉동 굴의 유통매장 입점 확대 등으로 주요국 수출 호조
* 수출실적 : (일본)31.6백만불, 10.6%↑ (미국)20.9, 16.7↑</td></tr>
</table>

잔여기간 종합전망

◈ 전반적인 굴 생산 및 양성상태가 우수하여, 8g 미만의 굴을 선호하는 국내보다는 수출에 적합하여, 해외수요처 확보 및 수출 전략 필요

농림수산식품 수출실적(2019년 12월 확정)

□ 부류별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18(A)		2019(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4,815.4	9,300.3	4,740.2	9,538.4	△1.6	2.6
□ 농림축산식품	4,183.4	6,925.7	4,052.7	7,027.1	△3.1	1.5
○ 신 선	521.7	1,276.0	640.7	1,382.3	22.8	8.3
- 과실류	130.5	310.9	129.7	351.5	△0.6	13.1
- 채소류	98.4	279.3	169.5	324.3	72.2	16.1
- 인삼류	7.5	187.9	10.6	211.1	41.1	12.4
- 김 치	28.2	97.5	29.6	105.0	5.1	7.7
- 버섯류	19.8	49.6	22.0	54.4	11.1	9.6
- 곡 류	98.1	49.5	98.4	51.9	0.3	4.8
- 가금육류	35.6	47.6	51.4	65.0	44.3	36.6
- 화훼류	2.2	18.7	1.9	17.2	△11.9	△8.2
- 돼지고기	0.9	5.2	1.3	6.1	40.2	16.6
- 산림부산물	100.4	229.8	126.4	195.8	25.8	△14.8
○ 가 공	3,661.6	5,649.7	3,411.9	5,644.8	△6.8	△0.1
- 연초류	64.7	925.3	60.5	929.4	△6.4	0.4
- 면 류	178.3	556.0	201.6	612.1	13.1	10.1
- 과자류	129.0	431.4	132.7	440.9	2.8	2.2
- 음 료	442.0	417.7	468.7	422.0	6.0	1.0
- 주 류	463.9	407.2	426.8	383.7	△8.0	△5.8
- 소스류	85.8	229.7	97.6	255.9	13.7	11.4
- 낙농품	36.4	156.0	37.2	155.2	2.0	△0.5
- 목재류	881.4	293.9	527.9	222.9	△40.1	△24.1
- 기 타	1,380.2	2,232.5	1,459.0	2,222.7	5.7	△0.4
□ 수산식품	632.0	2,374.6	687.5	2,511.3	8.8	5.8
- 어 류	414.2	1,223.5	456.9	1,220.6	10.3	△0.2
- 해조류	42.0	601.0	48.4	661.7	15.2	10.1
- 연체동물	39.4	235.1	44.4	261.0	12.6	11.0
- 갑각류	13.3	188.7	10.5	209.1	△21.4	10.8
- 기 타	123.0	126.2	127.3	158.9	3.5	26.0

* 십만불 단위 반올림으로 부류의 합은 총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8년 對베트남·미얀마·라오스 쌀 무상원조 실적(1.2만톤, 20.0백만불)은 수출실적 집계대상에서 제외
* '19년 對미얀마·라오스 쌀 무상원조 실적(1.0천톤, 2.0백만불)은 수출실적 집계대상에서 제외

□ 국가별(농림수산식품)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18(A)		2019(B)		증감률(B/A)		비중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4,815.4	9,300.3	4,740.2	9,538.4	△1.6	2.6	100.0
일 본		915.7	2,084.1	908.0	2,158.5	△0.8	3.6	22.6
중화권	소 계	1,479.3	2,295.3	1,350.6	2,416.7	△8.7	5.3	25.3
	중 국	1,102.9	1,501.6	977.1	1,629.3	△11.4	8.5	17.1
	홍 콩	212.3	424.2	205.6	413.3	△3.1	△2.6	4.3
	대 만	164.2	369.5	167.9	374.1	2.3	1.3	3.9
ASEAN	소 계	1,120.7	1,755.8	1,125.3	1,812.8	0.4	3.3	19.0
	베트남	421.5	584.9	486.8	672.2	15.5	14.9	7.0
	태국	186.3	409.1	213.2	398.6	14.4	△2.6	4.2
	인니	241.6	227.2	131.4	197.7	△45.6	△13.0	2.1
인 도		23.0	48.9	33.3	54.2	45.0	10.8	0.6
중남미	소 계	105.0	174.5	109.4	172.5	4.2	△1.1	1.8
	브라질	6.1	12.9	7.1	15.7	17.0	21.7	0.2
북 미	소 계	370.2	1,202.3	398.8	1,304.7	7.7	8.5	13.7
	미 국	333.3	1,080.0	359.1	1,171.4	7.8	8.5	12.3
	캐나다	37.0	122.3	39.7	133.3	7.4	9.0	1.4
이슬람 국 가 (OIC)	소 계	570.0	888.3	462.5	754.2	△18.9	△15.1	7.9
	UAE	29.5	196.3	31.3	137.6	6.1	△29.9	1.4
	카자흐스탄	9.2	35.8	9.2	29.9	△0.3	△16.6	0.3
	이란	22.1	32.4	1.3	2.6	△94.0	△92.1	0.0
	사우디	6.0	27.3	6.3	26.9	4.5	△1.3	0.3
E U	소 계	250.6	585.8	250.1	559.7	△0.2	△4.5	5.9
	네덜란드	51.7	96.1	41.2	99.7	△20.4	3.8	1.0
	프랑스	22.1	79.2	25.3	73.5	14.3	△7.2	0.8
	이탈리아	15.2	59.6	17.0	58.6	11.8	△1.7	0.6
	폴란드	24.4	33.5	18.0	28.2	△26.3	△15.9	0.3
오 세 아니아	소 계	82.8	238.8	88.8	240.2	7.3	0.6	2.5
	호 주	49.9	164.9	51.9	161.2	4.0	△2.3	1.7
	뉴질랜드	13.6	41.5	13.5	39.0	△1.1	△5.9	0.4
아 프 리 카	소 계	119.2	154.8	121.5	160.4	2.0	3.6	1.7
	남아공	5.8	17.0	6.7	19.2	16.7	13.1	0.2
러시아		109.2	215.8	120.1	204.8	10.0	△5.1	2.1
기 타		37.5	105.7	38.9	123.7	3.7	17.1	1.3

* 십만불 단위 반올림으로 부류의 합은 총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8년 對베트남·미얀마·라오스 쌀 무상원조 실적(1.2만톤, 20.0백만불)은 수출실적 집계대상에서 제외
* '19년 對미얀마·라오스 쌀 무상원조 실적(1.0천톤, 2.0백만불)은 수출실적 집계대상에서 제외
** 對라오스 무상원조는 태국실적에서 제외(태국 항구 통관 후 육로이송)

□ 국가별(농림축산식품)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18(A)		2019(B)		증감률(B/A)		비중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4,183.4	6,925.7	4,052.7	7,027.1	△3.1	1.5	100.0
일 본		771.4	1,323.8	785.0	1,427.1	1.8	7.8	20.3
중화권	소 계	1,380.8	1,794.3	1,203.4	1,769.0	△12.8	△1.4	25.2
	중 국	1,015.4	1,110.9	840.3	1,106.4	△17.2	△0.4	15.7
	홍 콩	209.9	371.4	202.8	352.9	△3.4	△5.0	5.0
	대 만	155.5	312.1	160.3	309.7	3.1	△0.8	4.4
ASEAN	소 계	897.6	1,306.7	877.3	1,373.1	△2.3	5.1	19.5
	베트남	350.1	447.4	418.1	514.4	19.4	15.0	7.3
	태국	72.6	183.5	73.5	197.1	1.3	7.4	2.8
	인니	228.9	205.0	114.4	169.7	△50.0	△17.2	2.4
인 도		22.8	48.2	33.0	53.4	45.0	10.7	0.8
중남미	소 계	73.5	131.4	79.2	129.2	7.8	△1.7	1.8
	브라질	6.0	11.8	6.9	12.7	16.0	8.1	0.2
북 미	소 계	340.6	889.0	367.6	969.2	7.9	9.0	13.8
	미 국	306.3	802.0	331.0	874.3	8.1	9.0	12.4
	캐나다	34.3	87.0	36.6	94.9	6.8	9.1	1.4
이슬람 국 가 (OIC)	소 계	518.7	813.3	413.7	683.9	△20.2	△15.9	9.7
	UAE	29.3	194.3	31.1	135.9	6.3	△30.1	1.9
	카자흐스탄	9.1	35.0	8.9	26.9	△3.0	△23.0	0.4
	이란	17.0	23.9	1.3	2.6	△92.3	△89.3	0.0
	사우디	5.5	26.3	6.2	26.7	12.5	1.4	0.4
E U	소 계	226.4	414.1	219.1	385.1	△3.2	△7.0	5.5
	네덜란드	51.2	88.3	40.5	89.6	△20.9	1.5	1.3
	프랑스	18.5	26.7	22.0	27.5	19.0	2.6	0.4
	이탈리아	9.5	19.9	12.2	21.6	28.5	8.8	0.3
	폴란드	24.4	32.4	18.0	26.7	△26.4	△17.7	0.4
오 세 아니아	소 계	71.1	206.9	74.1	203.6	4.2	△1.6	2.9
	호 주	48.1	148.1	49.9	142.8	3.8	△3.6	2.0
	뉴질랜드	13.0	36.5	12.8	33.6	△2.0	△8.0	0.5
아 프 리 카	소 계	69.3	106.2	76.3	116.6	10.1	9.7	1.7
	남아공	4.9	15.3	5.8	17.7	18.1	16.2	0.3
러시아		101.0	188.8	108.9	168.6	7.8	△10.7	2.4
기 타		33.3	92.4	35.2	109.8	5.6	18.9	1.6

* 십만불 단위 반올림으로 부류의 합은 총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8년 對베트남·미얀마·라오스 쌀 무상원조 실적(1.2만톤, 20.0백만불)은 수출실적 집계대상에서 제외
* '19년 對미얀마·라오스 쌀 무상원조 실적(1.0천톤, 2.0백만불)은 수출실적 집계대상에서 제외
** 對라오스 무상원조는 태국실적에서 제외(태국 항구 통관 후 육로이송)

□ 주요 품목별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18(A)		2019(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4,815.4	9,300.3	4,740.2	9,538.4	△1.6	2.6
□ 농림축산식품		4,183.4	6,925.7	4,052.7	7,027.1	△3.1	1.5
○ 신 선		521.7	1,276.0	640.7	1,382.3	22.8	8.3
인삼류		7.5	187.9	10.6	211.1	41.1	12.4
김 치		28.2	97.5	29.6	105.0	5.1	7.7
채소류	소 계	98.4	279.3	169.5	324.3	72.2	16.1
	파프리카	31.9	92.3	35.3	91.5	10.7	△0.8
	채소종자	0.6	50.2	0.6	56.0	11.4	11.5
	딸 기	4.9	47.5	5.7	54.5	17.3	14.7
	토마토	7.3	16.8	7.5	17.5	2.2	4.0
과실류	소 계	130.5	310.9	129.7	351.5	△0.6	13.1
	배	32.9	80.1	30.7	83.3	△6.7	4.0
	유자차	15.2	41.2	13.1	38.5	△13.8	△6.6
	포 도	1.4	14.3	2.0	23.5	41.3	64.4
	사 과	2.9	7.6	2.9	7.0	0.8	△7.9
	단 감	5.7	7.6	5.5	8.3	△4.4	9.5
	감 귤	1.8	2.4	2.3	2.9	30.7	24.0
화훼류	소 계	2.2	18.7	1.9	17.2	△11.9	△8.2
	백 합	0.8	6.9	0.6	6.1	△21.8	△11.7
	장 미	0.4	1.6	0.4	1.7	1.4	7.5
	난 초	0.2	1.2	0.1	0.9	△43.1	△22.0
버섯류	소 계	19.8	49.6	22.0	54.4	11.1	9.6
	새송이	6.6	23.5	7.6	26.3	15.3	11.9
	팽 이	12.0	21.5	13.1	22.7	9.2	5.9
곡 류	소 계	98.1	49.5	98.4	51.9	0.3	4.8
	쌀	52.0	24.3	51.8	24.7	△0.4	1.8
가금육	소 계	35.6	47.6	51.4	65.0	44.3	36.6
	닭고기	32.6	41.9	49.5	61.5	51.8	46.9
	오리고기	2.6	4.8	1.6	2.9	△38.6	△39.7
○ 가 공		3,661.6	5,649.7	3,411.9	5,644.8	△6.8	△0.1
가 공	음 료	442.0	417.7	468.7	422.0	6.0	1.0
	라 면	116.0	413.1	137.3	467.1	18.4	13.1
	맥 주	211.7	154.4	209.3	145.9	△1.1	△5.5
	비스킷	21.1	125.8	20.2	116.2	△4.4	△7.6
	조제분유	8.7	99.2	8.7	96.0	△0.1	△3.3
	소 주	72.2	97.6	65.8	89.7	△8.8	△8.0
	쌀가공식품	48.6	91.3	54.6	108.4	12.5	18.8
	제3맥주	98.2	61.6	54.4	35.7	△44.6	△42.1
	고추장	16.7	36.8	17.7	37.7	5.7	2.3
	생우유	9.5	16.6	10.8	19.0	14.5	14.4
	막걸리	12.8	12.4	12.8	12.2	△0.6	△1.8
기타가공	궐 련	54.3	792.2	51.3	717.4	△5.6	△9.4
	커피조제품	75.1	265.7	76.0	270.3	1.2	1.7
	설 탕	299.9	140.2	286.0	119.8	△4.7	△14.5
□ 수산식품		632.0	2,374.6	687.5	2,511.3	8.8	5.8
어 류	참 치	216.9	617.7	239.0	571.6	10.2	△7.5
	고등어	70.2	68.5	44.8	49.5	△36.2	△27.7
	넙 치	6.3	64.6	8.0	55.9	26.9	△13.4
	삼 치	9.2	33.8	17.2	55.9	87.4	65.7
연체동물	굴	10.4	68.8	11.0	76.7	5.7	11.5
	전 복	2.4	62.9	2.2	61.6	△8.6	△2.1
	오징어	7.5	30.9	8.2	34.2	8.7	10.7
	바지락	8.8	27.8	10.0	29.8	14.2	7.5
해조류	김	22.1	525.6	27.0	579.6	22.1	10.3
	미 역	15.6	36.9	16.3	39.6	4.3	7.1

* '18년 對베트남·미얀마·라오스 쌀 무상원조 실적(1.2만톤, 20.0백만불)은 수출실적 집계대상에서 제외
* '19년 對미얀마·라오스 쌀 무상원조 실적(1.0천톤, 2.0백만불)은 수출실적 집계대상에서 제외

□ 주요 품목별(금액순)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18(A) ▼		2019(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4,815.4	9,300.3	4,740.2	9,538.4	△1.6	2.6
□ 농림축산식품	4,183.4	6,925.7	4,052.7	7,027.1	△3.1	1.5
○ 신 선	521.7	1,276.0	640.7	1,382.3	22.8	8.3
○ 가 공	3,661.6	5,649.7	3,411.9	5,644.8	△6.8	△0.1
□ 수산식품	632.0	2,374.6	687.5	2,511.3	8.8	5.8
궐련	54.3	792.2	51.3	717.4	△5.6	△9.4
참치	216.9	617.7	239.0	571.6	10.2	△7.5
김	22.1	525.6	27.0	579.6	22.1	10.3
음료	442.0	417.7	468.7	422.0	6.0	1.0
라면	116.0	413.1	137.3	467.1	18.4	13.1
커피조제품	75.1	265.7	76.0	270.3	1.2	1.7
인삼류	7.5	187.9	10.6	211.1	41.1	12.4
맥주	211.7	154.4	209.3	145.9	△1.1	△5.5
설탕	299.9	140.2	286.0	119.8	△4.7	△14.5
비스킷	21.1	125.8	20.2	116.2	△4.4	△7.6
조제분유	8.7	99.2	8.7	96.0	△0.1	△3.3
소주	72.2	97.6	65.8	89.7	△8.8	△8.0
김치	28.2	97.5	29.6	105.0	5.1	7.7
파프리카	31.9	92.3	35.3	91.5	10.7	△0.8
쌀가공식품	48.6	91.3	54.6	108.4	12.5	18.8
배	32.9	80.1	30.7	83.3	△6.7	4.0
굴	10.4	68.8	11.0	76.7	5.7	11.5
고등어	70.2	68.5	44.8	49.5	△36.2	△27.7
넙치	6.3	64.6	8.0	55.9	26.9	△13.4
전복	2.4	62.9	2.2	61.6	△8.6	△2.1
제3맥주	98.2	61.6	54.4	35.7	△44.6	△42.1
채소종자	0.6	50.2	0.6	56.0	11.4	11.5
딸기	4.9	47.5	5.7	54.5	17.3	14.7
닭고기	32.6	41.9	49.5	61.5	51.8	46.9
유자차	15.2	41.2	13.1	38.5	△13.8	△6.6
고추장	16.7	36.8	17.7	37.7	5.7	2.3
미역	15.6	36.9	16.3	39.6	4.3	7.1
삼치	9.2	33.8	17.2	55.9	87.4	65.7
오징어	7.5	30.9	8.2	34.2	8.7	10.7
바지락	8.8	27.8	10.0	29.8	14.2	7.5
쌀	52.0	24.3	51.8	24.7	△0.4	1.8
새송이버섯	6.6	23.5	7.6	26.3	15.3	11.9
팽이버섯	12.0	21.5	13.1	22.7	9.2	5.9
토마토	7.3	16.8	7.5	17.5	2.2	4.0
생우유	9.5	16.6	10.8	19.0	14.5	14.4
포도	1.4	14.3	2.0	23.5	41.3	64.4
막걸리	12.8	12.4	12.8	12.2	△0.6	△1.8
사과	2.9	7.6	2.9	7.0	0.8	△7.9
단감	5.7	7.6	5.5	8.3	△4.4	9.5
백합(화훼류)	0.8	6.9	0.6	6.1	△21.8	△11.7
오리고기	2.6	4.8	1.6	2.9	△38.6	△39.7
감귤	1.8	2.4	2.3	2.9	30.7	24.0
장미	0.4	1.6	0.4	1.7	1.4	7.5
난초	0.2	1.2	0.1	0.9	△43.1	△22.0

* '18년 對베트남·미얀마·라오스 쌀 무상원조 실적(1.2만톤, 20.0백만불)은 수출실적 집계대상에서 제외
* '19년 對미얀마·라오스 쌀 무상원조 실적(1.0천톤, 2.0백만불)은 수출실적 집계대상에서 제외